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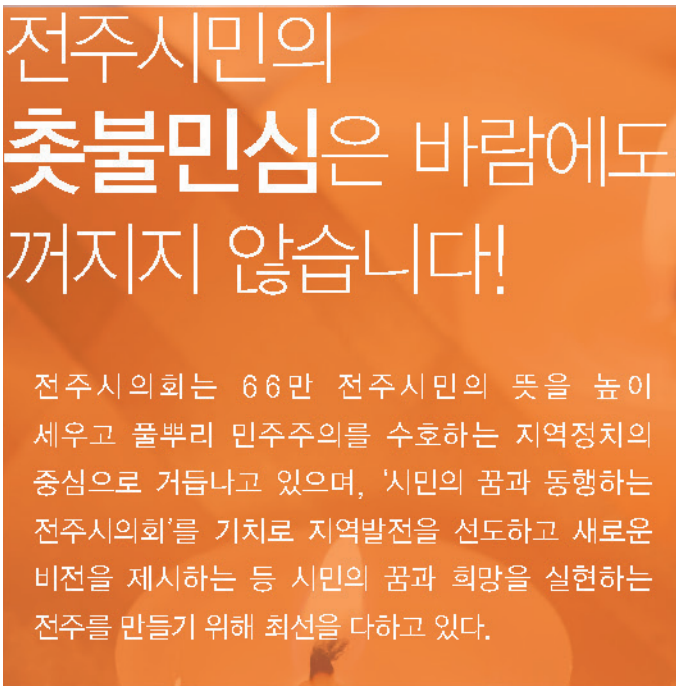
전주시의회보 **제21호**
www.council.jeonju.go.kr

시민의 꿈과 동행하는

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
JEONJU CITY COUNCIL

전주시의회


전주시민의
촛불민심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전주시의회는 66만 전주시민의 뜻을 높이 세우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지역정치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시민의 꿈과 동행하는 전주시의회'를 기치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Contents

JEONJU CITY COUNCIL vol.21

04 발간사 / 전주시의회 의장
05 축 사 / 전주시장
06 전주시의회 연혁
07 제10대 후반기 전주시의회 구성
08 제10대 전주시의회 의원 총람
10 2016 의정활동 성과
12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활동
24 결의안, 성명서, 건의안
27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32 의원연구단체 활동
36 2016 의원 의정활동
69 어린이의회 체험교실
70 전주시의회 디지털 홍보관 소개
72 중앙시장 청년밀당 / 비빔밥 축제 소개
76 2017년도 전주시의회 회기 운영계획
77 편집후기





전주시의회보 제21호 | **발간등록번호** 77 4640065 000001 11 | **발행인** 전주시의회 의장 김명지
발행처 전주시의회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 **편집인** 전주시의회 사무국
홈페이지 www.council.jeonju.go.kr | Tel 063.230.3730 | Fax 063.230.3657 | **디자인 • 인쇄** 바다소리

발간사
전주시의회 의장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지역 정치 중심의 장(場)이 되도록 노력할 것"

한 해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전주시의회 「제21호 의회보」 발간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2016년은 전주시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가 「시민의 꿈과 동행하는 전주시의회」를 목표로 개원하면서, 전주시민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적극적인 정책 발굴 및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온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지역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66만 전주시민의 꿈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두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주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노력 위에 전주는 국제슬로시티이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서 천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였고, 탄소산업밸리, 전북혁신도시, U-20 월드컵 개막도시 선정 등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열정과 꿈을 빛낼 수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민의(民意)의 대변인으로서 지역 정치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갈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까지의 소중한 성과와 결실을 맺기까지 전주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주시의회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큰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1월

전주시의회의장 김 명 지

축사
전주시장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만들기 위해 시의회와 항상 협력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전주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장 김승수 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서른네 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담은 전주시의회보 제21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6년 7월 '제10대 전주시의회'는 전반기 의회를 마감하고 후반기 의회를 새로이 구성함으로써 다시 한 번 힘찬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그리고 행정을 견제하는 감시기관으로서 '시민의 꿈과 동행하는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분골쇄신해주신 의원님들께 본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전주시도 2016년은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시정의 중심에 항상 사람의 가치를 먼저 두고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향해 달려온 결과,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라는 슬로건이 이제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닌, 전주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올 2017년에도 전주는 '사람, 생태, 문화와 일자리'를 중심으로, 좋은 도시를 넘어 위대한 도시를 향한 여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차별화된 도시정체성을 기반으로 지금보다 발전된 모습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신뢰와 믿음으로 변화하는 전주의 모습을 지지해주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전주가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땀의 결실인 제21호 전주시의회보 발간을 축하드리며,

이번에 발간되는 전주시의회보를 통해 시민에게 더 큰 사랑받는 전주시의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전주시장 김 승 수

전주시의회 연혁
History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97조에 의거 1949년 7월 4일 공포된 법률 제32호 지방자치법이 같은 해 12월 15일자로 개정되어 1950년 12월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950년 6·25동란으로 인하여 지연되어 오다가 1952년 4월 25일 초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전주시의회가 구성되었다.

- 1949. 07. 04 지방자치법 제정 공포 (법률 제32호)
- 1952. 04. 25 초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21명)
- 1956. 08. 08 제2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16명)
- 1960. 12. 19 제3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18명)
- 1961. 05. 16 5·16 쿠데타로 지방의회 해산(군사혁명위 포고 제4호)
- 1990. 12. 31 지방자치법 제8자 개정(법률 제4301호)
- 1991. 03. 26 제4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45명)
- 1995. 06. 27 제5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45명)
- 1998. 06. 04 제6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40명)
- 2002. 06. 13 제7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35명)
- 2006. 05. 31 제8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34명)
- 2010. 06. 02 제9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34명)
- 2014. 06. 04 제10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34명)



전주시의회 구성

제10대 후반기



위원회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동화 (인후1·2동)	오평근 (평화2동)	양영환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이기동 (완산, 중화산1·2동)	이병하 (덕진, 호성동)
부위원장	박형배 (효자3·4동)	백영규 (완산, 중화산1·2동)	이경신 (비례대표)	서난이 (비례대표)	고미희 (비례대표)
위원	고미희 (비례대표)	김윤철 (중앙, 풍남, 노송동)	김주년 (평화2동)	강동화 (인후1·2동)	김진옥 (팔복, 조촌, 동산, 송천2동)
	백영규 (완산, 중화산1·2동)	박현규 (효자3·4동)	송정훈 (팔복, 조촌, 동산, 송천2동)	김남규 (송천1동)	김현덕 (삼천1·2·3, 효자1·2동)
	서선희 (서신동)	서선희 (서신동)	이명연 (인후1·2동)	김순정 (비례대표)	남관우 (진북, 금암1·2동)
	송정훈 (팔복, 조촌, 동산, 송천2동)	송상준 (팔복, 조촌, 동산, 송천2동)	이병도 (인후3, 우아1·2동)	박형배 (효자3·4동)	박병술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오정화 (인후3, 우아1·2동)	최찬욱 (진북, 금암1·2동)	이완구 (서신동)	소순명 (삼천1·2·3, 효자1·2동)	박혜숙 (송천1동)
	이완구 (서신동)	황만길 (덕진, 호성동)	허승복 (중앙, 풍남, 노송동)	오정화 (인후3, 우아1·2동)	이미숙 (효자3·4동)
	장태영 (삼천1·2·3, 효자1·2동)				장태영 (삼천1·2·3, 효자1·2동)

제10대 전주시의회 의원



의 장 **김 명 지**
(인후3, 우아1·2동)



부 의 장 **송 상 준**
(팔복, 조촌, 동산, 송천2동)

(지역구순)



김 윤 철
(중앙, 풍남, 노송동)



허 승 복
(중앙, 풍남, 노송동)



백 영 규
(완산, 중화산1·2동)



이 기 동
(완산, 중화산1·2동)



박 병 술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양 영 환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김 주 년
(평화2동)



오 평 근
(평화2동)



김 현 덕
(삼천1·2·3동, 효자1·2동)



소 순 명
(삼천1·2·3동, 효자1·2동)



장 태 영
(삼천1·2·3동, 효자1·2동)



서 선 희
(서신동)



이완구
(서신동)



박현규
(효자3·4동)



박형배
(효자3·4동)



이미숙
(효자3·4동)



남관우
(진북, 금암1·2동)



최찬욱
(진북, 금암1·2동)



강동화
(인후1·2동)



이명연
(인후1·2동)



오정화
(인후3, 우아1·2동)



이병도
(인후3, 우아1·2동)



김남규
(송천1동)



박혜숙
(송천1동)



이병하
(덕진, 호성동)



황만길
(덕진, 호성동)



김진옥
(팔복, 조촌, 동산, 송천2동)



송정훈
(팔복, 조촌, 동산, 송천2동)



김순정
(비례대표)



고미희
(비례대표)



시민의 꿈과 동행하는, 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꿈과 동행하는 전주시의회' 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공부하고 연구하는 혁신 의회,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실천 의회 구현을 위해 그 어느 해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34명의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주민 대표기관의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

전주시의회는 올 한 해 동안 정례회(2회)와 임시회 (9회) 등 11자례의 회의를 열어 조례안 106건, 동의안 67건, 결의안 2건 등 총 214건의 의안을 다뤘다. 이 가운데 한복입기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등 37건의 의원발의가 있었다. 이 외에도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 청년 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민생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시의회는 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지역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왔다. 지난 1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 당초대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또한 19대 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 모두가 합심해 탄소산업육성법 제정에 힘을 보탰으며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 이행과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업무 복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의회는 시정의 올바른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38건(23명)의 시정질문과 66건(66명)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66만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시의회는 또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원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연구회, 의정포럼 '함께 배움' , 전주비전연구회, 지방정치제도개선 연구회 등 의원 연구 단체 활동을 지원해왔다. 특히, 탄소산업 육성 전략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토론회, 강연회, 비교견학 활동을 실시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과 지역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혁신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3월 관내 대학생 32명으로 구성된 의정사이버 정책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지방의회를 좀 더 이해하고 의정운영과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개선방안들을 발굴해 내는 기회로 삼았다. 이 외에도 어린이의회 체험교실, 본회의 생중계 및 방청 등을 통해 의회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처럼 전주시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편에 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 동 화



부위원장
박 형 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구현
투명하고 청렴도 높은 의회 정착

의회운영위원회(강동화, 박형배, 고미희, 백영규, 서선희, 송정훈, 오정화, 이완구, 장태영 의원)는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회규칙에 관한 사항 등 의회 운영 방향을 전반적으로 결정하는 조타수 역할을 수행하며 생산적인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왔다. 특히, 안건심사와 조례·제도 개선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등을 통해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 조례안, 결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토론회와 간담회를 20여 차례 개최하였다. 지난 6월에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 이행과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업무 복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며 지방분권의 현실화와 새만금 투자 약속 이행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앞장서기도 했다. 위원회는 또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회 청렴도와 신뢰도 제고에도 힘써왔다. 의장단의 예산집행을 분기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의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회의록 공개 시스템을 통해 의회 회의 내용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❶ 2016 의원 친선 체육대회
❷ 2016 의원 연찬회
❸ 순창 가인교육농장 비교견학
❹ 2017 U-20 월드컵 성공 개최 기원 친선 축구 대회



위원회 활동성과
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



위원장
오 평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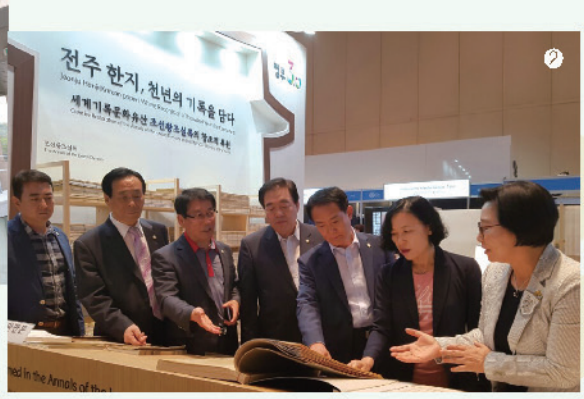
부위원장
백 영 규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 추구
집행부 감시·견제 역할 충실

행정위원회(오평근, 백영규, 김윤철, 박현규, 서선희, 송상준, 최찬욱, 황만길 의원)는 전주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도서관, 풍남학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위원회는 올해 제326회 임시회부터 제336회 정례회까지 조례안 28건, 동의안 7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처리했으며 주요 안건에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통해 시민의 인권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태 속에서 바람직한 인성과 창의적 역량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이 있다. 또한, 시민의 고충과 불만 등 여론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여 시정 방향을 바로잡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최선을 다해왔다.











❶ 서울 풍남학사 방문
❷ ICA 서울총회 기록전
❸ 효자도서관 방문
❹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 예정지 방문
❺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예정지 방문



위원회 활동성과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 위원회



위원장
양 영 환



부위원장
이 경 신

쾌적한 생활환경과 행복한 복지인프라 구축
보편적 복지 실현 앞장

복지환경위원회(양영환, 이경신, 김주년, 송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완구, 허승복 의원)는 전주시 복지환경국, 전주시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동물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전주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동 주민센터로 전환하는 동네복지 사업을 시범 운영하여 동네 주민 전체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 실현에 앞장섰다. 한편, 위원회는 올 한 해 동안 조례안 33건, 동의안 21건 등 총 54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거주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생태숲 동물원 조성, 맑은물공급사업 등 20여 회에 걸친 현장활동과 간담회를 실시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시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데 힘써왔다.









❶ 시흥시 복지재단 비교 견학
❷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현장활동
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업무보고
❹ 동물 치유 쉼터 개소식



위원회 활동성과
문화경제위원회

문화경제 위원회



위원장
이 기 동



부위원장
서 난 이

관광 산업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서민 경제 안정과 신성장 산업 분야 육성 지원

문화경제위원회(이기동, 서난이, 강동화, 김남규, 김순정, 박형배, 소순명, 오정화 의원)는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신성장산업본부, 농업기술센터, 한옥마을사업소, 예술단운영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탄소, 3D 프린팅 등 신성장 산업 분야 육성 지원과 한옥마을, 생태동물원 등 관광 산업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느 때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전라감영복원, U-20 월드컵 개최, 국제슬로시티 재인증 등 전주시의 도약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앞장서왔다. 위원회는 올해 조례안 19건, 동의안 22건, 건의안 1건 등 총 42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했으며 주요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창업기반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안」,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 등이 처리됐다. 이처럼 위원회는 서민경제 안정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장을 분주히 발로 뛰었으며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창업활동 지원 등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❶ 한국전통문화전당 방문
❷ 탄소산업 육성 전문가 초청 강연회
❸ 탄소기술원 방문
❹ 서울 북촌한옥마을 비교 견학
❺ 한옥마을 문화시설 현장활동



위원회 활동성과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
이 병 하



부위원장
고 미 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으로 행복한 전주 건설

도시건설위원회(이병하, 고미희, 김진옥, 김현덕, 남관우, 박병술, 박혜숙, 이미숙, 장태영 의원)는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생태도시국, 사회적경제지원단, 시민교통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표방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기반시설과 주거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위원회는 제326회 임시회부터 제336회 정례회까지 조례안 2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3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비롯하여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등이 있다. 위원회는 또 견훤로 대체도로 개설공사, 어은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현장 등 20여 회에 걸친 현장점검 및 간담회를 실시해 사업 추진 상황과 현장실태를 점검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❶ 전주 첫 마중길 조성 사업 현장 방문
❷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현장 방문
❸ 에코시티 조성 현장
❹ 산성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 현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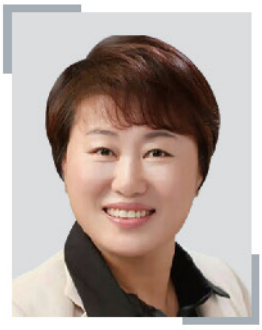


위원회 활동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병 도



부위원장
고 미 희

효율적인 예산심사로 예산 건전성 확립
낭비 예산 절감으로 시민 복리 증진 기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투명하고 균형 잡힌 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매년 사업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사전 조사와 검토 없이 예산편성을 요구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사업부서에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요구 시 사업가능성, 사업물량,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또 결산심사 결과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평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사례를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위원회는 제336회 정례회 기간 중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고 균형 잡힌 예산 심사를 실시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 투자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전주시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
이병도, 고미희, 김남규, 김순정, 김윤철, 남관우, 박병술, 박현규, 서난이, 이경신, 이명연, 이완구, 최찬욱



전주시 폐기물처리 시설 등에 관한 행정 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완 구



부위원장
오 정 화

폐기물처리시설의 잘못된 관행 개선 노력
청소행정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 기대감

전주시의회는 지난 1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그동안 제기돼 온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분석 및 근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데 힘써왔다. 특위는 지난 7개월 동안의 활동을 통해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서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주민지원기금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지급되는 등 개선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지원기금 지원의 기준이 되는 반입수수료 문제와 편법이 반복되고 있는 운영비 운용 문제, 주민감시요원 적정 수 여부 및 소각장 운영 변동비 수의계약 문제, 진입도로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 리싸이클링타운 공기 연장의 타당성 검토 등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수년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은 적법하지 못한 관행적 시스템에서 반복적인 문제와 갈등을 야기해왔으나 이번 특위조사 활동을 통해 전주시 청소행정의 새로운 전기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명단
이완구, 오정화, 김남규, 박병술, 서선희, 송정훈, 이기동, 이명연, 이병하



결의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하라!

전주시의회는 정부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방침과 관련, 전북이전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도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주시의회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월 정부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방침과 관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수도 없이 약속했던 정부가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독립공사화를 적극 주장해온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을 신임 이사장으로 들여앉히는 등 공사화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또 "정부가 기금운용본부의 소재를 전북으로 명시한 현 국민연금법을 뜯어고쳐서라도 또다시 약속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민 모두가 나서서 결사적으로 저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탄소산업육성법 제정을 전북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

전주시의회는 정부와 여당의 부정적 입장으로 지난 2년간 표류되어 온 탄소산업육성법이 19대 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통과된 것을 200만 전북도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주시의회가 전북의 100년 먹거리인 탄소산업의 육성법 제정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014년 처음 발의된 이후, 정부와 여당의 부정적 입장으로 무려 2년 동안 표류되어 온 탄소 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5월 19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200만 전북도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국내 탄소산업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전북도민의 뜨거운 열망과 지역 정치권 모두가 합심한 끝에 이루어낸 결과"라며 "전북이 국내외적인 탄소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 내의 일자리 창출과 창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성명서

삼성은 새만금 투자 약속을 이행하라!

전주시의회는 200만 도민이 철썩같이 믿어왔던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사실상 하루아침에 철회된 것과 관련, 삼성은 새만금 투자 약속을 이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주시의회가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 이행 방안 도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5월 "전북도민이 철썩같이 믿어왔던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사실상 하루아침에 철회된 데 대해 깊은 절망과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삼성은 새만금 투자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또 이제라도 정지권과 정부는 삼성의 투자 약속이 전북도민을 달래기 위한 역대 정권의 눈속임은 아니었는지를 철저히 따져보고 삼성의 투자 약속 이행을 이끌어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대로 삼성의 무성의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전주시의회는 지방자치의 가치와 지역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삼성 불매운동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 업무 복원을 촉구한다!

전주시의회는 전북의 미래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 재개가 시급하다며 화폐수급 업무 복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주시의회가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6월 전라북도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토대로 금융산업 특화도시로의 도약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 재개가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전북의 금융기관은 현재 화폐수급 거래를 위해 광주전남본부와 대전충남본부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막대한 운송비용과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어느 지역보다 화폐수급 업무 재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무엇보다 호남권의 각종 공공기관과 기업본사, 행정기관이 광주전남 지역에 90% 이상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라도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는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의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하라!

전주시의회가 가혹한 누진제를 적용 받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현실에 부합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요금 체계로 개편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주시의회가 가혹한 누진제를 적용 받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주택용 전기 이용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누진구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을 요구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4년 1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하여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전기사용 절약과 저소득층 요금 감면 혜택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40여 년이 지난 지금의 경제 환경과 국민생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의회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13.5%에 불과한 주택용 전력 사용량을 전력난의 원인으로 몰아 최대 11.7배에 이르는 가혹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현상 왜곡이며 불합리한 요금체계라며 현실에 부합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전기요금 체계로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국정파탄 자초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

전주시의회가 최근 국정파탄을 몰고 온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1월 "국정파탄 자초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캄캄한 절망이 가득하고 분노를 넘어선 뜨거운 슬픔이 거리 곳곳 백만의 불꽃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아온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지난 4년간의 박근혜 정권은 이해할 수 없는 국정운영과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으로 국가에 대한 신뢰와 소통을 무너뜨리고 헬조선이라는 수치스러운 자괴감과 함께 암울한 미래에 대한 절망만 안겨 왔다"고 비난했다. 시의회는 또 "박근혜 정권은 아집과 불통의 정책으로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정경유착의 거대한 부패 고리를 양산하여 온갖 특혜와 변칙으로 최순실 일파의 사욕을 채워 왔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뜨거운 민심을 이반하고 자기반성조차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며 "국민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여 즉각 하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photo active



2016년도 전주시의회 시무식 개최

전주시의회가 1월 4일 2016년 시무식을 갖고 의정 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전주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전주시의회가 1월 29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는 당초대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 했다.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 제정

한복입고 회의 진행 눈길

전주시의회가 1월 29일 한복입기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제정과 함께 모든 시의원이 한복을 입고 회의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photo active



의정사이버 정책 서포터즈 발대식

대학생과 정책 발굴 연구

전주시의회가 3월 14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도내 대학생들과 함께 정책발굴 및 자치입법 활동 등을 지원·홍보하는 의정 사이버 정책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폐기물처리시설 현장 탐방

안산 자원회수시설, 수도권 매립지 비교견학

전주시의회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5월 11일 안산 자원회수시설, 인천 수도권 매립지 등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 비교견학에 나섰다.



제10대 전주시의회 개원 2주년 기념식

'시민의 꿈과 동행하는 의회' 구현 다짐

전주시의회가 7월 18일 제10대 전주시의회 개원 2주년 기념식을 갖고 시민의 꿈과 동행하는 전주시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photo active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 예정지 방문

생태환경 타당성 현장점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7월 19일 전주천 상류 지역 일대에 조성을 검토 중인 전주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 예정지를 찾아 주변 생태여건, 부지매입 계획 등을 점검했다.



전주 첫 마중길 조성 사업 현장 점검

시민불편 최소화 당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7월 20일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과 산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시설 운영 점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주문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7월 22일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공연장, 체험관 등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점검에 나섰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photo active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장에 김명지 의장 추대

전북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정책 발굴 다짐

지난 7월 28일 전라북도 시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협의회장에 김명지 전주시의회의장이 선출돼 향후 2년간 의장단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U-20 월드컵 앞두고 축구 붐 조성

성공개최 기원 친선축구 경기 개최

전주시의회가 8월 30일 전주월드컵보조경기장에서 개막을 1년여 앞둔 2017 FIFA U 20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기원과 축구 붐 조성을 위한 친선 축구 경기를 가졌다.



시민의 거주보건환경 개선 앞장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점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9월 5일 종합리싸이클 링타운의 자원화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과 전주시 환경사업소의 공공하수처리 시설 등 현장 점검 활동 에 나섰다.

NEWS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photo active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전주시의회가 9월 5일 추석을 앞두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모래내시장을 찾았다.



전주시의회 의원 친선 체육대회

의원간 화합과 친선 도모

전주시의회가 10월 28일 화산체육관에서 의원간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2016 의원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전주시의회 2016 의원 연찬회 개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대비

전주시의회가 11월 9일~10일 양일간 제336회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에 대한 의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군산조선소 존치 서명부 전달식

군산시의회에 5만 명 서명부 전달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가 12월 12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전북 도민들의 서명부를 군산시의회에 전달하였다.

조례연구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초청 강연회 개최

서울 성동구 사례를 통한 정책 제도화 연구

조례연구회(회장 이미숙 의원)가 10월 20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조례연구회 회원을 비롯한 전주시의원과 관계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한 성동구의 지속가능정책팀 강형구 과장을 초청하여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강연회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문제점 ▲성동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 전략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 사례 ▲지속가능한 상생도시 구현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및 제도화 측면을 살펴보고 향후 전주시에 적용 가능한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는 정책 중심의 토론을 이어갔다. 조례연구회 이미숙 회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은 도심 상권에 관한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내고자 하는 상생협력 운동의 전략적 모형"이라며 "앞으로 적용 가능한 우수 정책 사례의 연구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도록 16명의 조례연구회 회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포럼 함께배움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방안 모색

노인복지정책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의정포럼 함께배움(회장 남관우 의원)이 11월 14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와 전주시 노인복지 정책 및 노인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연구회 회원을 비롯한 시의원과 관계공무원,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 실무를 담당하는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노인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되돌아보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노인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미등록경로당 시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오래된 경로당을 전반적으로 보수하여 2~3개의 거점경로당 형식의 특화된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논의됐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들의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와 중복 지원 사례 근절 방안 등 행정의 통합적인 조정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남관우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주시 노인복지정책에 바람직한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연구회 회원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비전연구회



타 지자체 선진사례, 전주시 행정에 접목

지역현안 중심의 연구 활동 지향

전주비전연구회(회장 이명연 의원)는 제10대 의원 총 16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지역현안 중심의 연구 활동을 지향하며, 각각의 연구주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활동을 위해 2014년 8월에 결성되었다. 비전연구회는 지역 현안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매월 정례적 월례모임을 개최하여 연구 활동 방향을 결정하고 관련 현안에 대한 타 지자체 및 해외 선진사례 등을 수집하고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정례화 하고 있다. 비전연구회는 지난 10월 생활창작예술 거점공간 우수 사례지인 창신소통공작소와 환경생태공원 성공사례지인 서울 월드컵공원에 대하여 비교견학을 실시하였다. 뉴타운 지구 전체가 해제된 첫 사례이자,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창신소통공작소는 주민과 전문 예술가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주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개발 소외 지역에서 예술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고, 서울 월드컵공원은 상호 공존 및 공생을 주개념으로 자연과 인간문화의 공존, 환경보전과 이용의 공생적 관계 구축 그리고 자연환경과 인공구조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연구회는 구도심의 동네공방의 의미에 대해 재고하고, 아울러 전주지역 매립지인 호동골의 발전에 있어 지속가능한 개발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 방안 모색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초청 강연회 개최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회장 이병하 의원)가 10월 27일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연구회 회원을 비롯한 시의원과 관계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대표이자 전주시 지속가능 생태도시 다울마당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용남 소장을 초청하여 지속가능 도시 구현을 위한 전주시의 미래전략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회에서는 ▲생태도시 모델인 꾸리찌바의 도시교통 시스템 및 도시 재생 사례 ▲자동차 없는 도시를 꿈꾸는 뉴욕의 교통정책과 시민의 삶의 변화 과정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한 이상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행복도시 운동의 산실 보고타의 사례 ▲연대경제의 기둥인 포르탈레자의 파우마스 공동체은행 사례 등을 통해 사람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도시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전주시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창조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이병하 회장은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시 만들기 사례를 통해 전주시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련한 지속적인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철 의원 (중앙, 풍남, 노송동)



시정질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 시급하다!

민선6기 전주시는 생태도시를 주창해왔다. 전주시의 생태도시 실현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환경을 보존하고 최대한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 대책 중 중요한 방안으로서 본의원은 2015년 5월 15일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충전기 설치 등의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고 2015년 8월 31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관련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주도, 서울시, 창원시, 광주시 등이 경쟁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기차를 1대라도 더 할당받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경쟁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천하태평으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5년 12월 정부가 친환경 차를 기후변화 대응 수단의 핵심이자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3차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 계획을 확정한 만큼 전주시는 정부 지원의 혜택을 많이 받도록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주시는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란다.

5분 자유발언

전주푸드와 전통시장의 상생방안 필요하다!

전주푸드 직매장을 전통시장 인근에 병행 설치하여 전주푸드와 지역 전통시장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주푸드 플랜은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이라는 대도시형 먹거리 전략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전주시가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지난 2015년 송천동 1호점 개장 후, 효자4동과 종합경기장 내에 2, 3호점을 운영하고 있다. 직매장 3곳의 월평균 매출은 3억 원가량으로 사업 성공의 단초를 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생활권 가까이에 직매장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전통시장을 외면하고 일반·공동주택 밀집지역에 전주푸드 매장을 확대 설치한다면 전통시장에는 치명적인 결과로 귀착될 것이다. 따라서 추가 직매장을 설립할 때에는 전주지역 농업의 특성, 소비자 접근성, 거주인구, 경쟁점포 등을 고려하여 전통시장 인근에 설치해 주기 바란다. 이제부터 설치되는 전주푸드 직매장이 전통시장을 아끼는 마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시장별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여 전통시장 인근에 병행 설치돼 농민이 웃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전통시장 상인들 또한 즐겁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길 소망한다.

허승복 의원 (중앙, 풍남, 노송동)



시정질문

시장의 공약사항 및 사업에 대한 시정질문

첫 번째, 지난 7월 29일 전주시는 '전주시, 함께하는 복지도시 구축 순항'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전북일보 등 7개 언론사에서 해당 자료를 보도에 활용했다. 시장은 본 보도자료 내용이 정당하며 한치의 부끄럼이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두 번째, 작년 12월 전동성당 뒤편에 총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했음에도 진출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도로는 주차장화 되었다. 이 도로를 보고 모든 사람이 이게 뭐지? 라고 말한다. 시장은 이 도로를 보고 사람들이 되묻는 이 질문에 답해 주기 바란다. 세 번째, 전북도의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 생태공원 조성이라면 기존 덕진공원을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생태공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은 덕진공원 생태공원화와 새로운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 중 어떤 방법이 전주시에 더 나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란다. 네 번째, 시장의 공약사항인 청년상상놀이터는 청년의 자기 계발과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다. 이를 위해 어떤 기반 정책들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는지 답변 바란다. 또 시장이 만들고자 하는 청년상상놀이터가 전북대의 무한상상실과 다를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주기 바란다.

5분 자유발언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사업 정책결정과정 밝혀라!

지난 7월부터 문제 제기한 전라북도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인 반딧불이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고자 한다. 먼저 해당 사업의 최종 결정 권한이 전라북도에 있다 하더라도, 전주시가 사업 내용을 선정·제시한 만큼 전주시의 정책 결정 책임이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둔다. 전주시가 아래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준다면 합리적 의심은 해소될 것이며 전주시의 정책 결정 시스템의 운영 또한 충분히 조명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최초의 생태동물원 혹은 덕진공원의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제안자는 누구이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안을 했는지 또 전주시는 어떤 기준과 근거로 제안을 검토·결정했는지 답변 바란다. 둘째, 최종 선정위 심의가 있기 전에 전라북도로부터 사업변경을 통보받았다면, 통보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사업변경을 통보한 사람과 반딧불이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제안자가 동일한지, 만약 다른 사람이 제안했다면 전주시는 변경된 사업 제안을 어떤 기준과 근거로 검토했는지 답변 바란다. 변경된 사업이 그 뒤로도 3차례 이상 변경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새로운 변경 과정에서 이뤄진 정책적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밝혀주기 바란다.

백영규 의원 (완산, 중화산1·2동)



5분 자유발언

기본 없는 전주시 자전거 정책, 이대로 놔둘 것인가?

전주시는 지난 1997년 자전거 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인프라 관련 예산만도 무려 44억 6천7백만 원이 투입되었고, 자전거 활성화 예산 역시 4억4천4백만 원이 반영됐으나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체 자전거 도로의 5.3%에 해당하는 20km에 불과하다. 이렇듯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자전거 활성화의 척도라 불리는 교통수단분담률은 2009년 2.3%에서 6년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2.31%에 머물고 있다. 0.01%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려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과 조례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주시 자전거 정책의 현 실태를 강하게 성토하며 다음 세 가지를 시급하게 주문코자 한다. 첫째, 민선 6기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독립된 단위의 자전거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현재 파악조차 되지 못한 자전거 운영현황 등을 위한 자전거 등록제 운영을 촉구한다. 셋째, 모두가 주목하는 전기자전거의 도입을 위한 시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의원활동

완산·중화산동 발전, 주민과 함께 이뤄내겠다!



백영규 의원은 10월 15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 '2016 전주시민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백 의원은 이날 동 대항 경기와 투호, 고리걸기, 전자다트 등 각종 종목의 경기가 펼쳐지는 곳곳을 찾아다니며 완산·중화산동 주민들을 응원했다. 특히, 백 의원은 줄다리기 선수로 직접 참가하여 승패를 떠나 주민들과 호흡을 함께하며 화합된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주민들과 평소 못다한 담소를 나누며 체육대회 내내 주민들에게 웃음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했다. 백 의원은 "이번 체육대회는 주민들과 함께 땀 흘리면서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과 항상 긴밀한 소통을 기본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완산·중화산동은 물론 전주시가 발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의원 (완산, 중화산1·2동)



의원활동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이기동 의원이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태 속에서 바람직한 인성과 창의적 역량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5월 1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에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최종 가결되어 인성교육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 중심의 시민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 공동체적 삶의 기본 소양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인성·창의 교육의 정책들을 적극 개발·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명문화하였다. 특히, 이번 조례를 통하여 인성 결여에 따른 중범죄 발생 등 사회적 기본틀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인성·창의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인성이 바로 서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구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동 의원은 "인성은 개인, 가정, 학교, 사회의 기본틀이자 규범의 시작이다"며 "사람의 도시 전주는 바로 인성이 바로 서는 전주가 되어야 하며, 이번 조례 제정 이후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인성·창의 교육을 공론화하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 활동

탄소산업 육성 전략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8월 31일 '전주시 탄소산업 육성 전략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탄소산업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전주시의원, 업계 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탄소산업 육성 전략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듣고 서로 간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강연회는 ▲전주시 탄소산업 발자취(탄소융합기술원 경영지원실 유원재 실장), ▲탄소법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탄소융합기술원 전략기획실 송준혁 실장), ▲메가탄소밸리 사업소개 및 추진 계획(탄소융합기술원 신사업조정실 송범근 책임관)을 주제로 강연이 이어진 뒤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전주시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질의·답변 형식의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기동 문화경제위원장은 "탄소산업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서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나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탄소산업이 전주의 든든한 성장동력이자 지속가능한 가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술 의원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5분 자유발언

전주시 청소년 보호·육성 체계 제도개선을 위한 '청소년 통합시스템' 을 만들자

전주시 청소년 정책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연계관리 부재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한 최선의 정책적 방향은 무엇인지 발언하고자 한다. 먼저 전주시 청소년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전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시설들과 가정을 연계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다. 둘째, 청소년 관련 정책들의 연계망이 부족하다. 즉, 전주시와 교육청, 경찰서는 기관별로 청소년 정책들을 운용 중이지만 서로 중복되는 정책도 많고, 연계부족으로 인해 청소년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은 지역사회 100년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는 일임에도 관련 위탁기관이나 시장 등이 바뀔 때마다 기관 운영 방향이나 시의 정책이 바뀌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통합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통합시스템은 가정 내의 문제를 밖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시·교육청·경찰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정책을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청소년통합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가족청소년정책실을 마련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지속가능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원활동

'사랑의 밥차' 무료 급식 봉사활동



박병술 의원이 지난 8월 25일 평화1동 광선교회에서 "찾아가는 동네복지, 누구나 행복한 평화1동 만들기"일환으로 시작된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박병술 의원은 소망봉사단, 평화1동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돼지 불고기 등 가정식 백반을 장애인 및 홀로어르신 300여 명에게 나눠드리는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박병술 의원은 "사랑과 관심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밥 한 끼의 따뜻함과 사랑을 나눠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평화1동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 밥차'는 지난 4월, 평화1동 주민센터(동장 임진구), 평화1동 전주 연탄은행(대표 윤국춘), 복지위원회(위원장 홍성길), 주택관리공단 전주평화1관리소(소장 하진호)가 지역 주민을 위해 중식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따뜻한 사랑의 식사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양영환 의원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시정질문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전주시의 개선 의지를 확인코자 한다. 첫 번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 선별장 공간 부족으로 현 상태라면 하루 60톤이 넘는 재활용품 폐기물은 수거되지 못한 채 시내 곳곳에서 방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대로 괜찮은가? 두 번째, 재활용 발생량이 시설 처리용량보다 많고 야적 공간마저 부족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운영자는 돈이 되는 유가품(종이, 병, 고철 등)만 선별해서 받을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세 번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폐기물 부산물처리를 위해 전주권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하루빨리 문서화된 협의를 마쳐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행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네 번째, 종합리싸이클링 진입로 변경으로 인한 유휴부지 활용 계획은 있는가? 다섯 번째,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린 가연성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여섯 번째, 2024년 운영이 종료되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신축에 대한 향후 계획을 지금부터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종합적인 대책을 답변 바란다.

5분 자유발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해야한다!

오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던 종량제 봉투 지급 중단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지자체가 일정량의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이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사업은 2010년 지급에 따른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사업 자체를 중단해 버렸다. 우여곡절 끝에 정책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이 사업은 2013년 부활하여 3년간 지속되었으나 2016년 1월 1일부터 또다시 중단되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느 순간 지금껏 받아오던 혜택에 대해 '오늘부터는 받을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에 대해 생각해보았는지 묻고 싶다.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 준다는 식의 막무가내식 졸속행정이 아닌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 또 이른 시일 내에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사업을 재개하여 하루하루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바란다.

김주년 의원 (평화2동)

5분 자유발언

원스톱 장례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



장례문화의 변화 추세에 발맞춰 타 지자체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장사시설 정비 및 공원화를 통해 최신식 장사시설과 자연 친화적인 장묘시설을 갖춘 장례시스템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의 사정은 어떤가? 우리 시의 유일한 화장시설인 승화원은 2003년 증축된 후 2009년 건폐율 부족의 이유로 증축되지 못하고 리모델링되었다. 이로 인해 물리적으로 적은 공간과 취약한 환경, 급속한 노후화 및 보수비용 과다라는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최근 강화되는 환경법 대기배출허용치 강화로 현재 승화원에 설치된 대기배출 및 방지시설의 여과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어 언제 가동이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역 내 모든 주민에게 생애 전 과정에 대한 보편적이고 타당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자 의무이다. 지금 시작해도 빠르지 않다! 전주시에서는 현재 가동 중인 화장로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조속히 「승화원 현대화 정비사업 대책」을 마련, 적어도 5~6년 이내에는 새로운 화장시설을 갖춰 타 지자체 선진사례에서 보듯 '장례-화장-봉안의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분 자유발언

전주시는 순창방면 카풀 주차장을 시급히 조성하라!

전주시는 전북의 도청 소재지이자 중심 도시로서 많은 직장인들이 군산, 남원, 무·진·장, 순창 등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시 외곽 도로변 및 인근 지역의 무질서한 불법주차,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카풀 문화 정착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위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45억여 원을 들여 6개소 495면의 카풀주차장을 조성, 이를 이용하는 직장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순창 방면 출퇴근 자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전주시 평화동에서 모악산으로 가는 27번 국도 원동교차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불법 노점상과 카풀직장인, 이동 차량, 홍보음향 등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따로 없는 형국이다. 이런 대규모 불법주차가 올해로 7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민원 제기 등 할 수 있는 건 다해봤지만 해결되는 것은 없었다. 전주시가 관련 기관을 설득하고 필요성을 역설하며, 차선책 모색 등 노력하는 모습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늦었지만 전주시에서는 시급히 순창 방면 카풀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인근 주민들과 출퇴근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

오평근 의원 (평화2동)



5분 자유발언

전주시 교통 문제, 근본적인 대책 강구하라!

최근 전주역 앞을 비롯하여 효자동 박물관과 우전교 앞, 덕진경찰서 인근 결혼식장 일대는 주말만 되면 심한 차량정체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곳 외에도 전주시 전역의 65개소의 교차로 또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주시와 경찰은 이런 상습 교통혼잡 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거나 주요 교차로에 몇몇 인력을 배치하는 게 전부이며 결혼식장 측 역시 뾰족한 수 없이 주차장 확보와 안전요원 배치를 늘릴 계획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할 뿐이다.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교통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통영향평가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둘째,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셋째, 교통부문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교통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양한 통행특성을 반영하여 미래의 전주시 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움은 물론 최소한의 교통체증과 안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전주시 전역에 슬로시티 정신에 부합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5분 자유발언

국제슬로시티 재인증 후속대책 마련해야 한다!

전주한옥마을은 지나친 상업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슬로시티 재인증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주시와 주민의 합심과 노력으로 지난 4월 도시 전체가 국제슬로시티로 재인증되는 쾌거를 얻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번 국제슬로시티 재인증을 계기로 더 나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 전체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둘째, 전주시를 들어오는 주요 거점인 색장동(남원방면), 평화동(순창방면), 삼천동(정읍방면), 금상동(동전주IC, 진안방면), 조촌동(전주IC, 익산·군산방면) 주변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 관광지와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한다. 셋째, 소음·주차 문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한옥마을 원주민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전주시 전체가 국제슬로시티로 재인증된 것을 계기로 전주시가 살기 좋은 도시, 잘 사는 도시가 될 것이며 5년 후에도 국제슬로시티로 재인증되어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가 되길 희망한다.

김현덕 의원 (삼천1·2·3동, 효자1·2동)



시정질문

월드컵 경기장 대부료 체납액 징수하라!

2004년 전주시는 월드산업개발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월드컵 경기장 동측 하부 공간 9,131.8㎡를 연간 5억2천8십여만 원에 10년간 계약했지만 대부료 체납 등의 이유로 2014년 계약을 해지하여 현재 대부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월드컵 경기장에 대한 대부계약 해지가 2014년 8월 19일에 이루어졌음에도 공단측은 계획했던 강제집행 신청을 2년이나 지난 2016년 7월 28일에 신청하였고 아직까지 법원 강제집행은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월드컵경기장 내 북측 하부공간 3,527.26㎡에 대해서는 현대 유한회사 월드컵사우나가 2013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0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해 현재 운영 중이다. 올해 대부료 징수 현황을 보면, 1회차에 납부되어야 할 대부료부터 체납되어 납부통보를 한 상황이다. 전주시는 월드컵 웨딩홀이 대부료 미납으로 계약해지에 이르게 된 것을 볼 때 월드컵사우나의 대부료 체납 상황을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 시장은 현재 월드컵 경기장 대부시설들에 대한 대부료 체납현황과 징수현황에 대해 가감 없이 설명해주고, 2014년 계획했던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와 향후 징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란다.

시정질문

소공원 체육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지난해 소공원 체육시설 관리의 허술함에 대한 언론보도 후 본 의원이 구청 공원관리 담당부서와 시청 체육진흥과에 삼천체육소공원의 관리 실태에 관해 문의했지만 두 부서 모두 소관부서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러한 연유로 전주시가 설치한 삼천체육소공원의 경우 설치된 이후 관리부서 없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으며 지난해 이러한 실상이 뉴스에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련 부서에서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삼천체육소공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다. 전주시 소공원 74개소 및 주민편익증진 일환으로 자투리땅에 설치되어 확인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야외 운동시설의 경우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 이처럼 전주시가 설치하고도 어느 부서에서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시의 업무 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전주시가 시민을 위해 설치한 소공원의 관리 주체는 전주시인가? 지역주민인가? 더불어 소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고장이 나서 방치되고 있다면 이는 누가 수리·관리해야 하는가? 시장은 관리주체에 대해 명쾌히 답변해 주기 바란다.

소순명 의원 (삼천1·2·3동, 효자1·2동)



5분 자유발언

효사랑요양병원 장례식장 사업 철회 촉구한다!

효사랑 요양병원 인근은 구·신축 아파트가 혼합된 전형적인 주거지역이자 전주의 대표적인 교육·행정·상권의 중심지역이다. 만약 효사랑병원 장례식장이 설치된다면 그간 심각한 상습 정체 구간 도로(용머리~박물관)에 수백억을 들여 도로를 넓힌 사업은 일거에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더욱이 소음과 교통체증 등으로 지역 주민이 겪을 불편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효사랑 요양병원 측은 주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 한 번 없이 올해 전라북도에 운영허가를 받아 영업 개시일만을 기다려 왔다. 다행히도 현재 전라북도의 허가 취소와 전주시의 영업신고 반려로 행정적 절차는 우선 중지된 상태다. 만약 전주시가 이번 영업신고 수리를 해줬다면 도심 한복판에 요양병원 부대시설 이름으로 장례식장이 설치되는 전국 최초 선례가 되었을 것이며 이를 계기로 전주권 내 31개 요양병원에서도 우후죽순 격으로 부설 장례식장 설치와 신청이 빗발쳤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하며 효사랑 요양병원 역시 공식적인 사업철회! 발표 및 향후 추진 방지를 위한 주민과의 공증 절차를 즉각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5분 자유발언

자율방범대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나서라!

현재 전주시에는 총 48개의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신고, 청소년 보호, 학생과 여성의 안전귀가 등의 치안활동을 통해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자율방범대는 이러한 지역 치안 수요를 보완하는 국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방범 활동은 경찰의 관리·협조하에 이뤄지고 있는 반면 소요경비 등은 전주시에서 지원받다 보니 경찰과 전주시 사이에서 정체성이 모호한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유사단체인 의용소방대처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그간의 지원조차도 소모성 운영비로 치부되고 있다. 전주시와 대조적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9월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주시는 자율방범대를 지방경찰청 예규로 운영되는 임의 단체라고 폄하하는 무책임한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 자율방범대가 시민을 위한 범죄예방과 민생치안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전주시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 및 방안을 강구하고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장태영 의원 (삼천1·2·3동, 효자1·2동)



시정질문 (제33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6. 12. 9)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조례 개정 과연 옳은가?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7개월 동안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12개의 주요 지적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중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기존 조례 규정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구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라는 자의적 해석 소지가 있어 특위의 시정 및 권고에 따라 현금 지급 불가라는 명확한 규정은 담은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 대표발의 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10여 년간 주민들과 전주시가 뒤엉켜 관행처럼 반복해 온 분쟁의 원인을 현금 지원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의 가구별 지원 규모,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결정하는 것은 폐촉법의 지원 대상인 주민지원협의체의 고유권한이다. 다만, 이를 법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량권의 범위에서 위임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주변 지역지원 사항을 특정하여 제한하는 건 법령과 당사자 간 협약 위반이고 나아가 주민공모 방식의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잘못된 청소행정에 눈감고 반입거부 논리로 주민을 길들이는 행태에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와 실소를 금치 못한다. 시장은 본 개정조례(안)이 해당 법령, 시행령, 조례, 협약과 위배되거나 불법적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시정질문 (제33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6. 12. 9)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예산만 낭비하고 중단된 것인가?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삼천동3가 폐기물 밀집지역에 대한 전주시의 장밋빛 약속은 지켜지기는커녕 주민들을 우롱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은 삼천동3가 폐기물시설 밀집지역의 자원순환 및 환경 기초 시설과 자연생태 등 지역자원의 특징을 살려 전국 최고의 생태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 말 야심 차게 입안됐다. 이후 2013년에 사업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으나 유사 관련 용역 보고서를 베끼는 수준의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납품받아 6천7백만 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이는 당시 용역단계에서부터 주민지원단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 내용과 재원 확보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회와 전문가 토론 등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이 모든 과정이 철저히 무시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지난 2015년 3월 24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해당 사업 추진 여부를 묻는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공모사업 응모 등 국가 예산 지원을 위해서 건의했지만, 타당성 미비로 반영되지 않아 향후 사업의 타당성을 보완하고 재원 확보 가능성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를 보완하거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된 사항은 전혀 없다. 시장은 생태체험장 사업을 중단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서선희 의원 (서신동)



5분 자유발언

전주시는 기업이 사회공헌 통해 지역 환원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016년 대한민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기업의 전략 및 공공정책이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또 기업의 사회공헌 패러다임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회사의 방향과 목적에 관계없이 NGO가 주도하는 활동에 금전적 후원을 했다면 현재는 재정적 지원을 넘어 기업이 가진 다양한 역량을 발휘해서 진정성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참여에 대한 일반시민의 기대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비춰볼 때, 전주시는 기업의 공익적 부문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일이 절실한 때이다. 타 지자체의 기업 사회 공헌 사례는 전주시에 좋은 안내자 역할이 될 것이다. 성남시는 네이버 본사 유치로 인적고용과 지방세 증대 효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최첨단 도서관 설립, 성남지역 경로당과 초등학교에 PC 기증, 도서기증 등으로 지역사회에 기업이익이 환원하도록 했다. 전주시는 어떤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것은 전주시 경제발전 10년 플랜 수립만 있을 뿐이다. 이것도 전주시 경제발전의 비전과 목표 제시일 뿐 직접적인 기업 및 자본유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시장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틀을 짜고 그 밑에서 작은 단위들이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원활동



제9회 서신동 동민화합한마당 큰잔치

서선희 의원은 10월 8일 전주여울초등학교에서 서신골어울림 주관으로 열린 제9회 서신동 동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힘을 보탰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 기념식, 체육행사, 동민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특히, 동민들의 화합과 잔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개최된 동민 노래자랑에는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17개 팀이 접수되어 본선에 진출한 9개 팀이 이날 노래 실력을 뽐냈다. 또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솔선수범 봉사하는 선행 동민을 격려하기 위해 효행상, 공익상, 선행상, 애향상을 시상했다. 서 의원은 "이번 동민의 날 행사를 통해 서신동 동민들의 화합을 다지고 애향심을 널리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서신동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의원 (서신동)

시정질문

관내 지하보도 활용방안 필요하다!



지난 2014년 제315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하보도 공간 활용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한 바 있다. 전주시에 있는 6개소 지하보도의 경우, 이미 교통시설 측면에서 그 고유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어 지하보도 내부 공간을 벽면 갤러리, 북카페, 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당시 시장은 지하보도 이용 실태 및 활용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검토 후 제출해 주기로 구두 약속했지만, 1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아무런 답변을 들은 바 없기에 시장은 다음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란다. 첫째, 현재 전주시 관내에 있는 6개소 지하보도의 이용 실태 및 향후 지하보도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란다. 둘째, 현재 한일고 앞 지하보도의 경우 이용객 수가 극히 적어 자칫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재 활용도가 낮아 우범화 될 수 있는 공간을 공예품 등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해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재창조한다면 환경개선에 의한 도시 재생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창업 공간 확보 및 시니어들의 소질개발을 통한 자신감 및 성취감 고취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한일고 앞 지하보도 공간 활용 시범사업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5분 자유발언

도시개발사업 수지 분석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전주시에서는 지난 10년간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하가·효천·만성지구, 에코시티 등 많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1년 시의회에서는 도시개발의 사업 수지 분석을 위한 시스템 도입을 집행부에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환지개발방식에 따른 이익금 결산만 하고 있을 뿐, 일반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자 자체사업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들에 대한 분석에 손을 놓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가는 징수된 개발부담금 중 50%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전주시에서 진행된 개발사업의 경우 전주시가 관여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징수된 개발부담금이 있다면 부담금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으로 전주시민이 누리게 된 혜택은 무엇인지 또 개발에 따른 피해는 없는지 등 기본적인 데이터는 구축되어야 한다. 앞으로 객관적이고 정밀한 사업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업 수지 분석 데이터를 구축하고 도시개발사업의 미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구축된다면 향후 전주시에서 진행될 개발사업들의 타당성 분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박현규 의원 (효자3·4동)



의원활동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구현에 앞장

박현규 의원은 지난 2년간 전주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장을 맡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소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 특히,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뛰어왔다. 더불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급여끝전모으기」, 「까레이스키인 한복보내기」등 뜻깊은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였다. 또한, 지역 정치의 한계를 넘어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현실화를 위한 밑거름을 다져왔다. 당면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박 의원은 "시민과 더욱 소통하며 상임위원회와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한 정책발굴에 만전을 다해 전주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원활동

감자수확 농촌일손돕기



전주시의회가 농번기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박현규 의원(제10대 전반기 의장)과 직원 50여 명은 지난 6월 김제시 황산면 정영선씨 농가를 찾아 감자 수확에 힘을 보탰다. 이날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선 박현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감자를 수확하기 위해 1,000평이 넘는 밭의 감자줄기를 제거하고, 캐 낸 감자를 크기별로 선별한 후 상품성에 따라 포장하는 작업을 하는데 많은 구슬땀을 흘렸다. 정영선씨는 "수확기를 맞아 부족한 일손으로 걱정이 참 많았는데 무더운 날씨에도 감자 수확을 돕기 위해 멀리서 이렇게 찾아와주신 전주시의회 의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현규 의원은 "갈수록 심해지는 농촌 지역 고령화로 농촌지역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속적인 농촌 일손 돕기 운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일손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침체된 농촌사회 분위기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16 의원
의정활동

박형배 의원 (효자3·4동)



5분 자유발언

영구임대아파트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제안한다!

도시형 에너지 자립 모델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공동주택형 옥상 태양광 설치 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현재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원(연간 1억 4천만 원 정도)되고 있는 평화주공 1·4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도입하면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태양광의 초기설치 비용을 전주시에서 지원한다면 현재 연간 전기사용료 지원비를 기준으로 3년 추정 지원금 4억 2천만 원 대비 태양광 설치비용 3억3천만 원을 감안하면 예산절감(9천만 원)이 가능하며, 설치 이후 전기사용량 역시 보전되고도 남을 사업이다.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가 이제 단순 요금지원 방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도시형 에너지 자립이라는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아지길 바라며 이미 지원되는 제도에서 한 차원 높은 생각의 전환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향후 민간아파트로 확장될 수 있는 성공적인 공동주택 에너지 자립시책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전주시가 영구임대아파트 옥상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전주형 에너지 자립 시책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원활동

지역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 근거 마련

박형배 의원이 전주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실적인 창업지원과 경영안정 지원을 제도화하는 근거를 마련,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전주 시내 상인들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주시의회는 3월 22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시책 발굴 등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 전주시의 책임을 강조했으며 소상공인 대상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특례보증 지원 사항의 근거 등을 담았다. 조례는 이처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호·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안정 지원사업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지원 사업 ▲업종전환 또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경기침체와 대형유통업체 진출로 지역 상권이 붕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기반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전주시와 협의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숙 의원 (효자3·4동)



시정질문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 건립을 촉구한다!

효자동은 인구가 밀집해 있고 지역 어르신 및 지역주민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증가와 함께 문화,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전주시 행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무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구 10만의 효자3·4동 지역에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기 바란다. 또 노인인구가 24.6%를 넘어서고 있는 서부권역에 노인복지관과 공연장 건립 중 어떠한 사업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현재 서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시는 재원의 부족과 한계가 있으므로 복합문화센터와 노인복지관을 분리하여 추진하기보다는 복합적인 기능을 엮어 하나의 복합건물로서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란다. 또한, 건립 부지 선정에 있어 이용자의 접근성과 주변 여건 등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용역을 통해 건립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란다.

5분 자유발언

효자공원묘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7월 18일 전주시의회 개원 2주년 기념사에서 김승수 시장은 전주효자공원묘지 이전을 언급 한 바 있다. 하지만 승화원과 공원묘지 같은 장의 시설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비선호시설이다. 더욱이 효자공원묘지를 이전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또 다른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 낡고 용량이 턱없이 부족한 승화원의 신축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 효자공원묘지는 이전할 것이 아니라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공원 내에 승화원 신축사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공원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경우 효자공원 묘지는 기존 묘지의 기능과 친환경 생태녹지 공간이 양립·공존하며 참배객과 지역주민의 정서에 부응하는 아름다운 묘지공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주시에서 착수한 장기 미집행사업과 연계된 효자공원묘지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효자공원묘지의 공원화 사업부지 약 42만㎡ 중 17만㎡가 미집행 면적이다. 따라서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이전에 공원화 사업에 필요한 미집행 부지를 먼저 착수해야 한다. 효자공원묘지의 공원화 사업으로 공원과 추모공간이 공존하는 시민공원으로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남관우 의원 (진북, 금암1·2동)



5분 자유발언

전주역, 선상역사로 재건축해야 한다!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천만 명에 육박하면서 전주역을 이용하는 관광객도 급증하고 있다. 전주역은 2010년 대비 철도 이용객이 128만 명이 증가해 서울역을 제외하면 전국 철도역사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주역 이용객은 256만 명이다. 하지만 전주역의 현실은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도시의 철도역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옹색하다. 건립된 지 35년이 지난 전주역의 대합실 좌석은 60석으로 간이역 수준이다. 최근 새로 신축한 익산역, 정읍역 등과 달리 전주역은 대규모 리모델링이나 증·개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철도 이용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생태동물원·덕진공원 등 유형 관광자원과 무형문화유산 발굴 등을 통한 무형 관광자원 발굴에 역점을 두고 제2의 전주 관광 시대 개막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천만 관광객 시대에 부응하는 관광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철도역사는 전주의 관문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광 인프라 시설이다. 전주역이 쾌적한 문화관광 도시 전주의 관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하루빨리 선상역사 건립 등 시설확장을 서둘러야 한다. 전주시는 전라북도,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철도시설공단, 국토교통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의원활동

진북동 나도지 봉사단 중식 봉사활동



남관우 의원은 5월 27일 진북동 나도지 봉사단(회장 이정희) 봉사자 43명과 함께 사랑의 희망열차 전문 이동봉사에 참여하여 진북동 관내 40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중식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 남 의원은 어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행사장 입구부터 식사 장소까지 동행함은 물론 400명의 어르신들에게 육개장 및 과일 등을 배식하는 등 성심성의껏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남 의원은 "진북동 나도지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한 끼의 식사와 관심이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든 것 같다"며, "봉사자들의 웃음을 보고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이어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관우 의원은 중식 봉사활동 외에도 겨울철 김장나눔행사, 연탄배달 봉사, 농촌일손 돕기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훈훈한 진북동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최찬욱 의원 (진북, 금암1·2동)



의원활동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지원 근거 마련

최찬욱 의원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와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0월 26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찬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및 실시계획 수립 규정을 두고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관계기관의 협조 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의 구조(救助)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찬욱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자들의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찬욱 의원은 지난 6월과 11월에 민관 협력 치안에 앞장서며 '범죄 없는 밝은 사회 구현'에 기여한 공로로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과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성구)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의원활동

전국체전 전북선수단 격려

최찬욱 의원은 제97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 강화 훈련에 여념이 없는 전북선수단의 사기진작을 위해 선수단을 방문하여 격려했다. 전라북도체육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지난 9월 20일 도체육회 회장단과 함께 전북체고를 방문하여 수영·체조·사격·복싱·테니스 등 5개 종목 110명의 선수들을 격려했다. 또 21일에는 우석대와 한별고를 비롯하여 라온볼링장을 찾아 축구·농구·볼링 등 3개 종목 90명의 선수들을 격려하며 전북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최 의원을 비롯한 전북도체육회 회장단은 이번 전북선수단 격려 방문에서 전북 대표 선수들에게 "오는 10월 열리는 제97회 전국체전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체육행사인 만큼 전북 대표 선수로 출전하는 여러분은 전북의 자랑스러운 아들·딸이다"며 "그동안 힘든 훈련을 이겨내며 갈고 닦은 기량을 부상 없이 맘껏 펼쳐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처럼 최찬욱 의원은 전북 도내 체육인을 대표하는 전라북도체육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전북체육 발전과 체육인 화합에 앞장섰다. 특히, 지난 10월 충남 아산에서 열린 제97회 전국체전에서 전북도가 체전 종합순위 9위를 달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강동화 의원 (인후1·2동)



의원활동

FIFA U-20 월드컵, 성공개최 준비하자!

강동화 의원(운영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FIFA U-20 월드컵 대비 축구비빔밥 퍼포먼스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 행사는 전주의 '맛, 멋, 흥'이 한데 어우러진 2016 전주비빔밥 축제의 일환으로, 인후2동 새마을 부녀회 등 전주시 33개동 주민들이 각양각색의 비빔밥을 준비해 관람객과 나눠먹는 대형비빔밥 퍼포먼스다. 특히 2017년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축구'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관광객과 시민 등 약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 250m 길이의 장관이 펼쳐졌다. 이날 비빔퍼포먼스는 비빔밥이 전주의 대표 음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즐기는 화합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동화 의원은 FIFA U-20 월드컵 개막도시로서 스포츠 명품도시로 거듭날 전주의 내일을 기원하고, 월드컵 개막전의 적극적인 홍보와 전주의 문화와 음식을 소중히 계승·발전할 수 있기를 전주시에 당부하였다.





의원활동

FIFA U-20 월드컵 홍보대사 위촉행사

강동화 의원(운영위원장)은 8월 10일 전주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된 FIFA U-20 월드컵코리아 2017 홍보대사 위촉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날 전주시는 2017년 전주에서 개막되는 FIFA U-20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북현대의 간판선수로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동국 선수와 우리 지역 출신 인기가수 국카스텐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이들은 내년 대회 종료 시까지 비빔밥 축제 등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U-20 월드컵 대회를 홍보하게 된다. 강동화 의원은 두 사람과 만남을 갖고 U-20 월드컵의 분위기 조성과 인지도 확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했으며, 전주시는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와 차질 없는 대회 운영으로 전주를 세계에 알리고 스포츠 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만들 것을 당부하였다.

이명연 의원 (인후1·2동)



5분 자유발언

어설픈 시내버스 노선개편안 개선해야 한다!

지난 7월 전주시는 60년 만에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 핵심은 시민들의 이동 수요에 맞춘 기존 미운행 지구 시내버스 노선 신설, 신규 개발지역의 노선 확대, 완주군 지역간 연계노선 신설이다. 하지만 이 개편안은 기존 미운행 지구 시내버스 노선 신설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35개 미운행 농촌마을 중 1개 마을을 제외한 34개 마을이 또 다시 소외되었고 전주시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주시 교통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마을진입도로 협소 및 회차지 미확보 등의 이유로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경우 소형승합자동차 마을버스의 도입을 해결 방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결합하고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검토이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노선 운영 효율화를 위해 도입되어야 할 지간선제를 반대하는 완주군과 버스 운영 체계를 분리하고 이에 따라 절약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현재 전주시 미운행 마을들을 위해 쓰는 것이다. 정책에서 소외되는 시민과 지역이 없는 전주를 기대해본다.

의원활동

전주-완주 통합 결렬된 만큼 상생조례 개정해야 한다!

이명연 의원은 지난 6월 제331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3년 전주·완주 통합이 실패함에 따라 전주시 노인복지관과 장사시설에 대한 완주군민 이용 혜택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며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이용대상자인 전주시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추진되었던 전주시-완주군 통합이 완주군 주민투표결과 반대 55%로 부결됨에 따라 당시 통합 진행 중 대승적 차원에서 완주군민을 포용하기 위해 개정되었던 완주군민 이용 혜택 조항을 원래대로 회복하여 전주시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군 통합이 무산된 만큼 더 이상 완주군민을 지원할 명분이 없고 이는 전주시민의 세금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제20대 전주시 국회의원들이 공약한 전주·완주 통합 논의에 2016년 5월 완주군의회에서 논의 자제를 촉구하는 등 사실상 통합에 반대하고 있어 현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통합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정화 의원 (인후3동, 우아1·2동)

5분 자유발언

전주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도서관 전문인력 강화를 촉구한다!



전주시는 도서관의 수는 많으나 도서관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제는 도서관의 외형적 확장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내실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때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 다음과 같은 도서관 정책 제안을 한다. 첫째,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주시는 2004년 전주시립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을 했지만 이에 대한 결과보고나,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도 없었다. 둘째, 전문사서의 부족한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에 따라 건물면적 330㎡ 이하인 경우 3명의 사서가 필요하며 면적(330㎡) 및 장서 6천 권 이상이 초과할 때마다 사서 1명을 두어야 하지만 전주시 공공도서관의 경우 대부분 그 최소기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전주시 대표도서관 격인 완산도서관의 관장과 분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해야 한다. 현행 도서관법 제30조를 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재 전주시의 대표도서관 격인 완산도서관장은 사서직이 아닌 행정5급이 맡고 있으며, 10개 분관장 또한 50%가 사서직이 아닌 행정직이 맡고 있다. 전주시는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전문 인력 강화를 하루 속히 시행해 주길 바란다.

의원활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나들이



오정화 의원이 지난 7월 16일 관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번 행사는 장애 및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삶의 여유를 누리지 못했던 장애인 가족들에게 문화체험 나들이를 통해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따뜻한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정화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태권도원과 태권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매년 무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태권도문화 엑스포 개막식을 참관하며 태권도 시범단 공연을 관람하고 태권도 관련 자료 6,000여 점이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립태권도 박물관을 견학했다. 이어 새만금방조제 아리울예술창고에서 새만금을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 공연되는 새만금 상설공연 '아리울스토리 시즌2'를 관람하며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지역주민과 문화체험 나들이를 함께한 오정화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족들이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도 의원 (인후3동, 우아1·2동)



5분 자유발언

부녀가정 주거지원사업에 관한 정책 제안

최근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이혼율의 증가와 가족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정의 세대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주시 한부모가정 현황을 살펴보면 2,184세대로 이중 부자가정은 한부모가정의 약 4분의 1인 548세대이다. 이들 가정 중 약 절반 정도는 아버지가 딸을 양육하는 부녀가정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 단칸방에 부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성(性) 고민 등으로 많은 불편과 심리적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전주시는 부녀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성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외에도 단칸방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부녀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두 칸방 거주를 위한 LH 등 임대주택의 자기부담금 및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존 집의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부녀가정의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LH 등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전주시에서는 저소득 부녀가정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해소하여 이들 가정의 자녀들이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녀가정 주거지원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

의원활동

나라꽃 무궁화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전주시의회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꽃 무궁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나라 사랑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 6월 24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병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주시 나라꽃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나라꽃인 무궁화의 학술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기초로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무궁화 육성사업을 활성화하여 전주시를 무궁화사랑 장려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전주시는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무궁화 가로수 식재, 무궁화 공원 조성, 무궁화 보존·보호 등 무궁화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에 필요한 ▲ 무궁화 묘목식재·관리 사업 ▲ 무궁화 품종 보존·연구 및 개발 사업 ▲ 무궁화 관련 디자인·상품생산·가공 등 공공사업 ▲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병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나라꽃인 무궁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나라사랑과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규 의원 (송천1동)



시정질문

음식산업 관련 맨파워 육성 시급하다!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은 "전주시는 그동안 관광객과 음식산업을 연계한 음식도시로서 기대만큼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체계적인 음식산업 관련 인력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월 21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주가 지난 10년 동안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며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성장했지만 음식클러스트 산업화 부문은 투자대비 산출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그동안 전주시 음식행정을 뒤돌아본 뒤 "앞으로 일본 가나자와, 음식창의도시인 중국 청두의 식문화 산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전주 음식산업화, 전주푸드플랜, 전주식재료산업 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주시 행정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가 지난 2012년 세계 4번째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된 후 관광객과 음식산업을 연계하는 역할을 그동안 다 했는지 그리고 향후 세계적인 음식도시가 되기 위한 시정방향과 음식산업 관련 맨파워 육성 방안을 설명해 달라"고 김승수 시장에게 물었다.

5분 자유발언

송천변전소, 주민 의견 청취와 전자파 피해조사 용역 실시 촉구

송천변전소는 4.13총선 당시 언론에서 뜨거운 이슈였다. 비록 전주시의 인허가 과정이 적법했다 하더라도 주민의견 청취와 전자파 피해 조사용역 실시를 통해 변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안산시 북안산변전소 사례를 살펴보면, 2007년 1월 변전소 건설계획이 확정되었지만 반경 500m 이내에 주거지역과 학교가 위치해 있어 결국 후보지 선정 등의 작업을 다시 했다. 당시 안산시의 '갈등관리조정회의'는 이해당사자 간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였다. 송천변전소도 안산시 사례의 교훈을 배워서 주민건강과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전자파 피해와 안전을 위한 조사용역 계약 절차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조사용역에서 다뤄야 할 핵심문제는 송천중앙로 구간 전자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굴착노선에 대한 고려와 굴착의 깊이이다. 안산시 및 타 지역 도심 도로굴착 사례를 조사하여 주민의 의견과 뜻으로 주민안전을 최우선시하는 행정조사, 절차를 한전과 다시 재논의해주기 바란다. 송천변전소 인허가가 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전주시는 주민안전을, 주민 의견 청취와 한전과의 재협상을 통해 주민갈등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례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

박혜숙 의원 (송천1동)



5분 자유발언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특례보증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전주시는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측면에서 매년 중소 제조업체, 벤처기업, 바이전주, 소상공인 등에 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영난과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지원 차원에서 바람직한 제도임에는 분명하나, 전주시의 경우 이차보전율이 3.5~5%로 다른 지역은 통상 3% 내외에서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주시도 3% 정도로 지원 폭을 낮춘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업종이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지원해주는 특례보증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특례보증제도는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배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가 추천하는 기업에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주시는 내일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육성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의 현실에 대한 갈급함을 지탱해 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그 대안이 바로 더 많은 혜택을 넓혀 줄 수 있는 이차보전율 조정이며, 특례보증제도의 도입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호소하며 전주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의원활동

주민들과 송천역 폐역 변전소 설치 철회 촉구 함께하다!

박혜숙 의원이 송천동 주민들과 송천역 폐역사 부지에 변전소를 설치하려는 한국전력공사의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과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전력공사가 주민과 대화도 없이 15만 4000볼트가 넘는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변전소를 주거지와 밀접해 있는 곳에 설치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보통 폐역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변경절차를 통해 완충녹지 해제, 역사폐지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5~7년 걸리는데 불과 1~2년 만에 국유지인 송천역 부지를 취득하게 된 것은 국토부와 전주시의 특혜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한전의 웃음 뒤에는 송천동 주민의 피눈물이 맺혀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7만 송천동 주민은 변전소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혜숙 의원은 지난 4월 송천동 주민 40여 명과 최근 건립한 오송정 현판식을 갖고 주민의 쉼터로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혜숙 의원은 "이날 현판식에서 오송제는 도심 속에 위치한 보기 드문 자연생태공간으로 주변 편백나무 숲과 과수원 길이 잘 어우러져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오송제를 친환경 생태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하 의원 (덕진, 호성동)



5분 자유발언

호성·우아동 철도주변 방음벽 설치 절실하다!

현재 전주를 관통하는 전라선 철도는 시간당 5~6대의 기차가 통행하고 있다.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변의 경우 아주 근접한 거리에 주거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철도 주변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공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철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방음벽을 많이 설치하고 있으나, 설치에 관한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하루의 피로를 단잠으로 풀어야 할 주민들은 시간당 다섯대 이상의 열차가 지나가며 내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철도소음 측정(호성동 동신아파트 기준) 결과 주간에는 최고소음 78db, 평가소음 52db로 법적 소음한도인 70db 이내였지만 야간시간대에는 최고소음 84db, 평가소음 67db로 야간시간대 법적 소음한도인 60db을 훌쩍 넘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철도소음의 경우 하루 평균 60~65db 이하 기준치로 적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최고소음을 병용하지 않고 측정 시간대의 평균소음도만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문제이다.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도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된 호성동 동신아파트 주변 방음벽 설치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철도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인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며 전주시가 직접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철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요청하도록 촉구한다.

위원회활동

도시건설위원회,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 현장점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7월 20일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과 산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전주역 앞 백제대로를 보행중심의 명품 특색거리로 조성하고 있는 마중길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척 상황을 체크하고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 등은 없는지 점검했다. 의원들은 "전주역 광장에서 명주골 구간에 조성 중인 사업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이어 위원회는 7월말 준공을 앞둔 산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교량, 돌담길, 산책로, 운동기구 설치 등 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침체된 전주역 앞 거리와 열악했던 산성천 하천환경을 특색 있는 거리, 친환경 생태하천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만길 의원 (덕진, 호성동)



의원활동

경로효친사상 실천 위한 '효사랑축제' 열어

황만길 의원이 10월 21일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 일원에서 덕진동 효사랑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윤구) 주최로 열린 제17회 덕진동 효사랑축제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덕진동 효사랑 한마당축제는 점차 희미해지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인 경로효친을 되새기면서 주민들의 힘으로 화합의 장을 열어 따뜻한 동네복지 실현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로 17회를 맞았으며 이날 효사랑 축제에는 1,000여 명의 덕진동 어르신들과 정동영 국회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등 여러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념식, 문화공연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등의 볼거리와 어르신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제기차기 등 체육행사도 함께 개최하여 어르신들을 즐겁게 했다. 또한, 신명나는 가요 공연으로 어르신들의 흥을 돋우고 이·미용봉사, 경혈봉사, 서금요법 봉사부스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도 도왔다. 황만길 의원은 "효사랑 축제를 통해 어르신들이 즐겁고 따뜻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해준 이윤구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효사랑 행사가 따뜻한 사랑 나눔 대표 축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원활동

부영임대아파트, 임대료 폭리 및 부실시공 개선하라!





황만길 의원이 덕진동 아가지구에서 부영 임대아파트의 지나친 임대료 인상과 하자보수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이날 시위에는 부영 임대아파트 거주자를 비롯하여 황만길 시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황만길 의원은 "부영은 LH공사로부터 토지를 값싸게 분양받고, 건축비는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는 등 임대사업자로서의 권리는 누리면서 부실시공, 부실감리로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임대료는 높게 받는 등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사업 취지를 외면한 채 기업의 이익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전주시에 따르면 2015년 접수된 하자는 지하주차장 및 천정누수, 현관과 본체벽 이격 현상 등 개인 161건, 공용 160건이다. 또한 임대료도 인근 임대아파트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계약 기간이 만료된 가구들은 부영 측으로부터 임대료 5% 인상을 요구받았다. 황만길 의원은 "부영건설 임대아파트의 총체적 부실로 입주민이 고통 받고 있다"며 "지나친 임대료 인상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김진옥 의원 (팔복, 조촌, 동산, 송천2동)



5분 자유발언

쌀값 하락,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대책 마련하라!

쌀값이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80kg 산지 쌀값(12월 25일 기준)은 14만 7천312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9%(1만 6천284원)로 낮은 수준이다. 풍년이 되어도 웃지 못하고 울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쌀값 하락의 원인은 수요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예상보다 작황은 좋고 재고량은 늘어나는 데다가 쌀수입 등으로 인해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쌀 수급 대책은 중장기적 대책이라 당장에 시급한 쌀값 하락을 막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요청한다. 먼저 수요 확대 측면에서 전주시에서 생산된 쌀을 구매하여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 바이전주 상품 가공의 경우나 떡, 막걸리, 기타 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우 전주에서 생산된 쌀을 쓰도록 의무화 또는 권장하는 한편 추가 비용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재고관리 차원에서는 전주시에서 자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재고쌀을 대북지원하거나 전라북도에 적극 제안하여 도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과잉 공급된 쌀 문제와 쌀값 폭락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의원활동

저소득가구 연탄나눔 봉사활동

김진옥 의원이 10월 17일 난방 여력이 없는 관내 저소득 연탄사용 가구에 연탄을 전하는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연탄나눔 봉사에는 김진옥 의원을 비롯한 후원업체 한국CTS(주) 임직원과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직원 40여 명이 참여하여 팔복동 소재 독거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 2세대에 연탄을 직접 배달했으며 8세대에는 연탄 쿠폰을 별도로 전달했다. 연탄을 신청해도 골목이 너무 길어 배달을 꺼리는 배달업체 때문에 겨울이면 걱정이 많았다는 독거 어르신은 연탄 후원도 모자라 손수 집까지 옮겨줘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후원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 CTS(주)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끊이지 않는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상준 의원 (팔복, 조촌, 동산, 송천2동)

(전주시의회 부의장)



의원활동

저소득가구 연탄나눔 봉사활동

송상준 부의장이 10월 17일 난방 여력이 없는 관내 저소득 연탄사용 가구에 연탄을 전하는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송상준 부의장은 겨울철을 맞아 한국CTS(주) 임직원과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직원 40여 명과 함께 생활이 어려운 팔복동 소재 독거노인 가구와 장애인가구 2세대에 사랑의 온기를 담은 연탄을 전달했다. 이날 배달된 연탄은 (주)한국CTS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으며 8세대에는 연탄 쿠폰이 별도로 전달됐다. 연탄을 신청해도 골목이 너무 길어 배달을 꺼리는 배달업체 때문에 겨울이면 걱정이 많았다는 독거 어르신은 연탄 후원도 모자라 손수 집까지 옮겨줘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송상준 부의장은 "이번 연탄 나눔 행사를 통해 겨울철 난방비를 걱정했을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나는데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의 민생현장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원활동

FIFA U-20 월드컵 전주지원협의체 발대식

송상준 부의장이 내년 5월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지원협의체 발대식에 참석하여 본격적인 축구 붐 조성에 나섰다. 지난 11월 15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송상준 부의장을 비롯하여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차범근 2017 FIFA 20 월드컵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등 전주시 주요기관 단체장과 일반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FIFA U-20 월드컵의 성공개최를 위한 월드컵 전주지원협의체 발대식이 열렸다. 지원협의회는 앞으로 시민들의 대회 참여유도는 물론 전주 개최 경기에 대한 관중 확보 노력, 원활한 대회 개최를 위한 행정 및 기술, 인력 지원 등을 수행한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한지 축구공에 불을 밝히며 개막전 개최도시 전주에서 열리는 대회 성공을 함께 다짐했다. 송상준 부의장은 "2017 FIFA U-20 월드컵은 전주라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명문 스포츠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며 "시민들과 세계인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스포츠 축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정훈 의원 (팔복, 조촌, 동산, 송천2동)



시정질문

서곡광장~추천대교 원안 도로개설 및 여의광장~전북여고 도로개설 촉구한다!

서곡광장~추천대교 도로개설 인근 팔복동 주민들은 지난 40년 이상 도시계획선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그런데 전주시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일방적인 선형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선형변경도로는 경사를 동반하는 굽은 길이 2곳이 생기고 심지어 굽은 길의 회전 반경이 작아 이 도로에 진·출입하는 차들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가장 큰 단점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기존 안에 대해서 가능하지도 않은 단점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위험성이 증가하는 곡선도로로 선형변경을 꼭 추진해야 하는지, 또한 위험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 또한 동산동 여산로 개설과 관련 현재 일부 구간만 개설되고 10여 년째 도로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부서에도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예산 성립은 고사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할 담당 부서마저 정확하지 않은 실정으로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통탄할 일이 아닌가? 진정 주민 편익과 국가산단의 앞날을 준비한다면 도로개설은 매우 시급하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5분 자유발언

시민과 소통하는 미래지향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항공대 이전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반대 집회가 열린 지 벌써 한 달 하고도 보름이 지나고 있다. 주민들의 고통과 원성은 무더위도 아랑곳없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그동안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의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에코시티와 태영을 앞세워 업무방해 고소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팔짱 끼고 바라보는 행정을 하고 있다. 항공대 이전은 처음 35사단 이전과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였음에도 전임 시장과 현 시장은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정작 전북도나 임실군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급하게 이전 후보지를 변경한 것이다. 대부분의 정치인, 단체장들이 상생과 화합을 운운하면서도 도도동 항공대 이전은 충분한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에코시티의 금융비용을 핑계 삼아 개발에 따른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도도동 인근 마을 주민들은 명분도 없고 당위성도 없는 항공대 이전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전주시장은 도도동을 찾아 그동안 잘못하였던 점을 깊이 사죄하고 진정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김순정 의원 (비례대표)



5분 자유발언

한옥마을 축제 콘텐츠 개발을 촉구한다!

천만 관광시대를 열어가려는 한옥마을의 위상이 드높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옥마을 위기론도 나오고 있다. 소위 정체성 논란은 수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 먹거리 중심의 상업화 문제를 비롯해, 대표 콘텐츠 부족 등 지속가능 성장 자체에 의문을 가지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당장의 위기론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함께 모아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전주시는 관광 거점을 한옥마을 밖으로 설정하는 외연 확장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한 듯하다. 물론 이러한 외연 확대 및 관광객 분산이라는 관광시책의 방식에서 전주 전역의 관광생태계 조성 방식은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한옥마을 내의 문화 콘텐츠가 부족한 가운데 외연 확장 방식으로만 선회한 시책은 자칫 볼거리 없는 한옥마을이라는 비판과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한옥마을 축제 콘텐츠로 우리 고유의 전통의 맛과 향이 살아 숨 쉬는 축제가 한옥마을 일대에서 추진되었으면 한다. 일례로 우리의 전통 떡과 지역 전통주를 결합한 '전통 식문화 축제' 등을 민관이 함께 주도한다면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정책과 결부된 전주만의 강점을 지닌 한옥마을 축제 콘텐츠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한옥마을 외연 확대는 한옥마을이라는 브랜드를 잘 정착시키고 활성화 시킨 이후에 추진해도 결코 늦지 않다.

의원활동

어르신 삼계탕 중식봉사활동



김순정 의원은 8월 8일 중앙동 해바라기 봉사단과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중식을 제공하는 삼계탕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으며 김 의원은 해바라기 봉사단 봉사자와 함께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과 떡, 과일 등을 태평1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배식하고 어르신들과 정담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은 "삼계탕 봉사를 위해 힘써주신 해바라기 봉사단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며, 어르신들께서 해바라기 봉사단이 준비한 보양 삼계탕을 드시고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시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통해 노인 공경과 효(孝)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역의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미희 의원 (비례대표)

시정질문

복합문화 복지시설 건립을 촉구한다!



24시간 돌봄·보육센터 건립은 맞벌이부모 및 한부모가정의 보육부담을 줄이고, 야간경제활동이 필연적인 가정의 경우 보호자 취업에 따른 아동방임을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보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취약 계층의 아동을 보호·보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24시간 돌봄·보육센터는 전주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은 24시간 돌봄·보육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24시간 돌봄·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현재 효자3·4동의 전주푸드부지, 초등학교 부지, 통계청 전주사무소 인근 부지 등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고, 특히 농소마을 인근 학교부지 매각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매각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란다. 또한, 인구밀집 지역이 되어버린 효자3·4동은 변변한 복지·문화시설이 없다. 효자3·4동 시 소유 공유지에 24시간 보육센터와 노인복지관, 청소년 문화센터와 공연장을 함께 건립한다면 영유아와 학부모, 노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세대가 어울리는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다. 복합 복지·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주기 바란다.



의원활동

어르신 봉양으로 이웃사랑 나눔 실천

고미희 의원이 9월 21일 효자4동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서의식) 회원 20여 명과 함께 휴먼시아3단지 경로당을 방문하여 3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얼굴마사지 및 찰밥 중식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고미희 의원은 어르신들의 얼굴을 촉촉하고 뽀송뽀송하게 해드리기 위해 마사지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했으며 아침 일찍부터 봉사자들과 정성스럽게 준비한 찰밥, 나물반찬 등을 경로당 어르신들께 대접하였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오늘 시원한 마사지도 받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지역구 의원에게 고맙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고 의원은 경로당 어르신들 위해 음식을 마련해주고 함께 봉사해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어르신들이 웃고 사는 행복한 동네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난이 의원 (비례대표)



5분 자유발언

전주시를 청년희망 도시로!

경제 불황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대부분 국가가 청년실업률을 비롯한 청년 문제에 봉착해 있다. 그러나 다 힘든 시기라고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이제 청년은 복지 대상의 제도권 안에서 품어 안아야 한다. 그렇다면 전주시는 어떠한가? 1조 3천억의 전주시 예산 중 청년 예산은 단 11억뿐이다. 전체 예산 중 0.08%에 불과하며 2016년 발표한 업무계획에 비해 예산수립이 굉장히 소극적이다. 앞으로 전주시가 청년희망도시로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무엇인지 어떤 점이 필요한지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둘째, 취업지원으로 청년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정책을 제도권 안에서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청년들이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지역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수도권과 차별화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 넷째,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여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할 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부서 간 협업도 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의원활동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서난이 의원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전주시 청년들의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의 학습권·건강권·생활수준 등을 보장하는 내용과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등 지역 청년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 주체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초 주요업무계획에 청년희망도시 기반 구축 의지를 표명한 전주시의 향후 청년정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1월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한복입기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 제정과 함께 모든 시의원이 한복을 입고 회의를 진행, 눈길을 끌었다. 서난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전주시장은 한복장려 시책추진과 한복문화의 개발 및 보급은 물론,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 운영하며 한복을 입은 시민은 문화시설 입장료를 감면하는 등 한복문화의 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경신 의원 (비례대표)

시정질문

서부권·혁신도시 복합아트센터 건립하자!



전주시는 그간 도시개발의 축이 구도심과 북부권 중심으로 이뤄져 전반적인 문화·예술 기반이 한쪽에 치우쳐 있다. 현재 구도심에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국립무형유산원을 포함한 7곳의 문화시설들이 몰려 있으며 북부권에는 한국소리문화전당을 비롯하여 6개의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서신·삼천·효자동을 비롯한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효천지구 등 이른바 서남권 지역에는 전주국립박물관과 전주역사박물관, 단 두 곳의 문화·예술 시설뿐이다. 이와 관련 서부권 복합아트센터와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란다. 또 현재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함께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 역시 쟁점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센터 건립과 관련 기능보강 방식 혹은 단위계획 사업 등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시급한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추후 조성계획은 무엇이며 혁신도시 정주여건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기 바란다.

5분 자유발언

롯데백화점 앞 교통광장 가설시설물 상행위 불법영업 특혜 아니냐!

롯데백화점이 백화점 앞 광장 시유지를 버젓이 점령하고, 그 땅에 대형 몽골텐트를 치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전주시는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시유지에 임대료를 많이 내고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시청 내 각 부서에 문의해도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과연 누구 말이 진실인가? 대기업은 시유지를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중·소상인이나 유통업체가 도로를 조금만 점유해도 공무원들이 득달같이 단속하는 게 현실인데 왜 그들만 특혜를 주고 단속의 잣대를 달리하는 것인가? 더욱이 시장은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대기업에 "전주의 노른자위를 내줄 수 없다"며 지역 중·소 유통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첫 번째로 내걸었다. "종합경기장 개발을 대기업에 내줄 수 없다"면서도 다른 한쪽에선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시장과 전주시가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시유지 교통광장에 대형 몽골텐트를 치고 영업하는 것은 지역 내 중소상인을 죽이고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시유지 점용허가가 이뤄졌는지, 만약 이뤄졌다면 임대계약이나 사용승낙에 따른 임대료를 받았는지, 만약 받지 않았다면 왜 안 받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어린이의회
체험교실





어린이의회 체험교실 운영

전주시 관내 초등학생 대상, 풀뿌리 민주주의 체험 기회 제공

전주시의회는 미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이끌어 갈 초등학생들에게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지난 2007년부터 전주시 관내 초등학생(4학년~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의회 체험교실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홍보 동영상 관람 및 설명, 3분 자유발언, 의회청사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의회를 체험하게 된다. 체험교실은 갈수록 교사와 참여 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전국 지방의회 우수 사례로 타 지역 지방의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어린이의회 체험교실은 매년 학기 초 교육지원청 또는 전주시의회를 통해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063-230-3731

전주시의회
디지털홍보관 소개



“ 전주시민의 열린 소통의 공간
– 전주시의회 디지털 홍보관 개장하다 ”

“政通人和(정통인화)하면 百慶俱興(백경구흥)이라”하였다. 즉, 정치가 통하여 사람들이 화합하면 온갖 경사가 함께 일어난다는 옛 성인의 말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치가 꽉 막히면 소통하지 못하고 온갖 문제가 일어난다.

전주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시의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회의 방청 및 참관이 자유로우며 지역현안과 정책발굴을 위한 공청회가 수시로 열리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현장체험 기회를 부여하는 의회체험 교실 운영을 통해 전주시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주의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8월, 전주시의회에 또 하나의 열린 소통 공간이 개장하였다. 대형 멀티비전과 터치스크린 등을 두루 갖춘 디지털 홍보관이다. 비교적 조용하던 의회 로비에는 홍보관을 방문하는 시민과 학생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본회의와 의회 홍보 영상을 생동감 있게 시청할 수 있는 대형 멀티비전이다. 50인치 브라운관 4개 규모의 사이즈로 청사 어느 곳에서도 시청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의정활동을 상시 방영하여 의정활동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터치스크린 기능을 탑재한 키오스트는 전주시의회의 역사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초대의원에서부터 현역의원까지 인명별, 선거구별, 위원회별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등 의회구성, 각종 의정활동 사진, 청사 안내 등 다양한 의회정보를 담고 있어 시민의 발길을 붙잡는다.

특히, 전주시의회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밝히고 이의 주권 인식을 환기시키고자 독도 영상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독도 영상관에서는 동이 트는 독도의 아침에서부터 노을이 깔리는 아름다운 저녁 모습까지 독도의 생태환경을 24시간 관찰할 수 있으며, 우리 영토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독도 실시간 영상은 독도상공 해발 100m에 설치한 파노라마 카메라가 영상을 찍어 무궁화 위성을 통해 실시간 전송된다.

독도 영상관에서는 동이 트는 독도의 아침에서부터 노을이 깔리는 아름다운 저녁 모습까지 독도의 생태환경을 24시간 관찰할 수 있으며, 우리 영토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지난 2011년 시민의 건전한 독서문화와 열린 개방의 공간 마련을 위하여 북카페인 '책장소리'를 개장한 바 있다. 이곳에는 문학, 소설, 역사, 사회과학, 각종 간행물 등 360여 권의 서적을 비치하고 있으며, 연간 천여 명의 시민들이 찾아 딱딱한 관공서가 아닌 시민의 사랑방으로서 자리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주시의회는 정치란 민의(民意)에서 출발한다는 신념을 잊지 않고 열린 의회를 만들어갈 것이며, 청사의 디지털 홍보관 운영과 더불어 시민을 위한 사진 전시회 등 시민의 문화휴식 공간으로서 가꾸며, 전주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행복한 전주 – 중앙시장 **청춘밀당**

"청춘(靑春), 우리는 희망이다
전주신중앙시장「청춘밀당」을 가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한때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말이다. 청춘은 봄이라는 옛 성인들의 말이 변질되다 못해 오히려 '고통'에 비유한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한 촌철살인이자 희망을 품은 슬픔이다. 현대에 있어 청춘은 아픔이고 슬픔이다. 지독한 경기불황과 취업난으로 비정규직으로만 떠도니 월급 고작 88만원의 세대라 부르고, 부모로부터 온전히 독립할 수 없다 해서 캥거루족, 심지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 해서 삼포세대라고까지 불린다.

그러나 너무 실망은 말자. 희망은 이른 봄 돌 틈 사이로 비집어 나오는 푸른 싹처럼 곳곳에 숨어있다. 바로 이곳, 전주의 신중앙시장 한 귀퉁이에 젊음의 찬가가 울려 퍼진다. 옹기종기 모여 앉은 상가사이로 보이는「청춘밀당」이다. 밀당은 '밀(meal 식사)'과 '당(堂 집)'을 조합한 단어로 청년들이 고객의 입맛과 밀당하며 맛있는 음식을 만들겠다는 포부가 담겼다. 바로 이곳에서 고소한 음식냄새와 소소한 재미가 넘치는 젊음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지난 5월 6일 개장한 「청춘밀당」은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이 대한민국 전통시장 활성화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랜드마크를 꿈꾸며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으로 조성되었다. 주로 신중앙시장에 부족한 음식점 등 먹거리 위주로 구성되었는데, 갖가지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뭉친 청년상인들은 이곳에서 새싹비빔밥과 뚝배기, 닭요리, 쌀국수, 한식, 고깃집, 막걸리 및 수제맥주 등 정겨우면서도 참신한 메뉴들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이를 리모델링하고 청년상인 창업자 10명을 지원받아 선발하는 등, 구도심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중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이 몰락하고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청춘의 신선한 에너지와 열정이 몰고 올 전통시장의 새바람을 기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청춘밀당」으로 가는 길은 조금도 어렵지 않다. 신중앙상가에 들어서기만 하면 어디에서든 「청춘밀당」을 홍보하는 예쁜 현수막을 발견할 수 있다.'후딱 골라보랑게'라는 이름 아래 식당과 메뉴를 자세히 소개한 포스터는 이곳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계단을 올라가면서부터 시장기를 자극하는 음식냄새가 자욱하다. 환기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쾌함과는 전혀 다른 정겨운 냄새다. 「청춘밀당」내의 '밀당길'을 따라 이어진 가게들이 모두 10개로, 한스탭하우스, 엘리스카페, 927 정잿간, 비커밍온유, 오지게, 중앙주가두리향, 밥상머리, 더쿠점방, 퓨전 8085, 또또 베트남 쌀국수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자리가 없는 식당, 조금은 한가하지만 독특한 메뉴가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식당, 장인정신을 뽐내는 듯한 사장님의 포스가 인상적인 식당 등 가지각색이다.







아기자기하고 특별한 메뉴들은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사람들로 북적인다. 인근에 자리한 회사 등의 직장인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고 일부러 찾아 나선 주부들, 대학생들도 눈에 띈다. 아직 남부시장 청년몰보다 관광객은 적은 편이라고. 하지만 저절로 눈이 가는 독특한 인테리어와 정성스러운 음식맛을 본 사람이라면 조만간 전주시의 명물이 될 것임을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리저리 이동하지 않아도, 볼거리도 보고 쇼핑도 하면서 밥도 먹고 커피까지 마실 수 있는 소위 '대형쇼핑몰식'거리 투어가 가능해서 좋고, 사람과 사람의 정과 흥이 오가는 열린 공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곳만의 강점과 매력은 더욱 분명해 보인다.

희망이란 어려울 때에 더욱 빛을 발한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취업난과 실업 등으로 힘겨운 청춘이지만, 작은 아이디어와 뜨거운 열정만 있다면 바로 이곳처럼 멋진 '핫플레이스'를 만들어갈 수 있다. 바로 이곳 「청춘밀당」에, 전주의 또 다른 희망이 꽃피고 있다.



• 행복한 전주 – 비빔밥 축제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비빔'의 즐거움

– 맛과 멋과 흥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다



19세기 조선의 명절과 풍속을 집대성한 『세시풍요(歲時風謠)』에서는 봄의 미각에 대해 이렇게 찬미하였다. "여러 가지 나물을 진설하매 한 소반이 향기 롭다/ 밥은 골동밥을 이루어서 쓴맛이 더하니……" 이는 입춘 날에 다섯 가지의 나물을 넣어먹는 풍습인 입춘 비빔밥을 읊은 것이다. 골동밥은 골동반(汨董飯, 骨董飯), 즉 골(汨)은 '어지러울 골'이고, 동(董)은 '비빔밥 동'이므로 여러 재료가 고루 섞여 있는 밥이라는 뜻이다. 『동국세시기』에도 『시의전서』에도, 『자학집요』에도 등장하는 골동반, 혹은 부빔밥은 가장 서민적이고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음식으로 우리민족이 사랑한 음식 중 하나다.

전라도의 전주는, 조선왕가의 본관이자 온갖 전라도의 산물이 모이는 곳이라 음식 맛이 좋기로 유명했다. 특히 전주비빔밥은 정성 들여 기른 콩나물과 오래 묵은 좋은 간장, 고추장이 있어 전국에서도 으뜸으로 쳤다.





전주에서는 아름다운 가을단풍이 시나브로 물들어가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전주비빔밥축제가 펼쳐졌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전주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맛보자! 느끼자! 즐기자!'를 주제로 「맛있는 정원」, 「맛으로 놀자」, 「비빔문화공연」, 「전국요리경연대회」, 「비빔전설」, 「DIY 멋진 비빔밥」, 「모여라 비빔밥-비빔퍼포먼스」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하나가 되어 어우러지고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개막 축하공연으로 초대된 국카스텐은 유명 TV프로그램 '복면가왕'의 최장 우승자로서 전북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공연장에는 수백의 관객이 모여 밤하늘을 가르는 그의 뜨거운 열창과 무대매너 속에 축제의 흥겨움을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수시로 열린 「비빔문화공연」에서는 젊은이들의 발길을 붙잡은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이 이루어졌고, 「맛있는 정원」에서는 이색비빔밥과 핑거푸드, 다문화음식 등 간편음식이 판매되어 시민들의 입을 즐겁게 했다.



19세기 조선의 명절과 풍속을 집대성한 「세시풍요(歲時風謠)」에서는 봄의 미각에 대해 이렇게 찬미하였다.“ 여러 가지 나물을 진설하매 한 소반이 향기롭다/ 밥은 골동밥을 이루어서 쓴맛이 더하니……”

특히 대표프로그램인 「33동 비빔퍼포먼스」는 2017 FIFA U-20 월드컵 성공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축구를 테마로 펼쳐졌는데, 시민과 관광객 등 무려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다. 애초 3천여 명의 양으로 준비하였던 비빔밥이 부족했으나, 전주시 33개동 주민들이 사전에 준비해두었던 많은 양의 비빔밥을 나누어 1만여 명이 나누어 먹는 가슴 따뜻한 광경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전국요리경연대회」는 1,081명에 달하는 참가자의 숫자만 놓고도 전국대회로서의 명성을 드높였으며, 「DIY 멋진 비빔밥」은 여러 재료들로 멋지게 디자인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번 축제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9만여 명이 다녀갔으며, 축제의 현장과 거리 등 뒤처리까지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 전주시민의 자부심을 드높이고, 음식의 맛과 전통뿐만 아니라 낯선 이와도 스스럼없이 음식을 나누고 즐기며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마음의 '비빔'을 선보였던 진정한 의미의 축제로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음식축제이자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2017년도 회기 운영 계획

월별	회 기	일수	주 요 안 건	비 고
2월	제337회 임시회 2.3(금)~2.10(금)	8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설날연휴 (1.27~1.29)
3월	제338회 임시회 3.6(월)~3.14(화)	9	• 시정에 대한 질문 •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4월	제339회 임시회 4.17(월)~4.21(금)	5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국제영화제 (4.27~5.6)
5월	제340회 임시회 5.10(수)~5.16(화)	7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한지축제 (5.20~5.23)
6월	제341회 제1차 정례회 6.12(월)~6.27(화)	16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의 •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7월	제342회 임시회 7.12(수)~7.19(수)	8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9월	제343회 임시회 9.14(목)~9.22(금)	9	• 시정에 대한 질문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10월	제344회 임시회 10.13(금)~10.19(목)	7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기간·방법) 결정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추석연휴 (10.3~10.5) *비빔밥축제 (10.26~10.29)
11월 ~ 12월	제345회 제2차 정례회 11.17(금)~12.20(수)	34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시정에 대한 질문 • 2017년도 제2회 추경 및 2018년도 예산안 심의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 매 회기별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과정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편집후기
Ending-Story



편집을 마치며

지난 7월, 전주시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는 '시민의 꿈과 동행하는 전주시의회'를 기치로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크게는 10대 의회의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때이자, 후반기 의회의 새로운 비전이 싹트는 중요한 시기로서, 시민의 행복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아쉬움이 남는 일도 있었지만, 그 또한 내일이라는 희망의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하며,

후반기 의정활동 역시 시민을 최우선으로, 66만 시민의 꿈 하나하나를 가꾸고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편집위원
강동화, 고미희, 박형배, 백영규, 이완구




전주시의회
JEONJU CITY COUNCIL